

# 7월 광주·전남 물가상승률 2.8%·2.9% ↑ 전국 '최대'

장마·폭염에 농산물 가격 급등  
생활물가지수 전년보다 3.3% ↑  
배 176.5%·사과는 29.0% 상승

지난 7월 광주·전남의 물가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장마와 폭염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물가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4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7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 소비자물가지수는 114.92로 전년 동월(111.70) 대비 2.9%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전남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에 견줘 6.0% 상승했다.

품목성질별로 보면 공업제품 지수와 서비스 지수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3.0%, 2.4% 오르는 데 그쳤지만, 농·축·수산물 지수는 6.0% 상승했다. 이는 장마철 잦은 비와 높은 기온으로 농산물을 중심으로 작황 부진으로 인한 가격 상승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지역민의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 역시 116.75로, 1년 전(112.98)보다 3.3% 올랐다. 구체적으로는 식품 상승률이 4.1%, 식품 외 상승률은 2.8%를 기록했다.

신선식품지수도 상승세를 보였다.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대비 1.2% 올랐고, 전년 동월에 비해 8.1% 오른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신선과실류의 경우 155.05로 전년

(124.87)보다 24.2% 높았다. 배가 전년 동월보다 150% 올랐고, 복숭아(38.0% ↑), 사과(33.8% ↑), 망고(14.0% ↑), 포도(11.5% ↑) 순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택시료(19.7% ↑), 경유(11.0% ↑), 휘발유(8.2% ↑), 자동차용LPG(8.1% ↑) 등에 합입어 교통(5.5% ↑) 상승폭이 가장 컸다.

지난달 광주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61로 전월(114.38)과 전년 동월(111.51) 대비 각각 0.2%, 2.8% 올랐다. 전남에 이어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컸다.

품목성질별로는 농·축·수산물이 전년 동월 대비 4.0% 올랐고, 공업제품과 서비스 지수 역시 각각 2.7%, 2.8% 상승했다. 지난달 광주 생활물가지수는 116.91로 전년 동월(113.51)에 견줘 3.0% 올랐다.

광주 신선식품지수는 전월 대비 2.4% 하락했지만, 전년 동월보다는 2.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선어개(-4.5%)와 신선채소(-7.7%)는 정부와 유통업체가 대규모 행사 등을 연달아 개최하면서, 물가 안정 노력에 따라 하락세를 보였지만, 신선과실 지수는 14.5% 올랐다.

신선과실류에서는 배가 1년 전과 비교해 176.5% 올랐고, 사과는 29.0% 상승했다.

지출목적별로는 기타 상품·서비스 부문이 4.9%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교통(4.5% ↑), 교육(3.7% ↑), 음식·숙박(3.1% ↑)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세계랭킹 1위 안세영 배드민턴 금빛 도전



배드민턴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삼성생명)이 금빛 스매싱에 나선다. 안세영은 5일 오후 4시 45분(이하 한국시간) 허빙자오(중국)를 상대로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을 치른다.

이도현(서울시청·블랙아크)은 올림픽 메달을 위한 등반을 시작한다. 이도현은 5일 오후 5시 스포츠클라이밍 남자 콤파인 볼더링 준결승 경기를

치른다.

콤파인은 4.5m의 암벽에 설치된 다양한 인공 구조물을 로프 없이 4분 이내에 통과하는 볼더링과 15m 높이의 인공 암벽을 6분 이내에 가장 높이 오르는 리드로 구성됐다.

5일 20명이 출전하는 남자 볼더링 경기가 열리고, 7일 진행되는 리드 경기 점수를 합산해 메달을 다툰 8명의 결승 진출자가 가려진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이도현은 올림픽 메달까지 올려보고 있다. 여자 단식에서 아쉽게 메달을 놓친 '한국 탁구 에이스' 신유빈(대한항공)은 단체전 메달을 위해

다시 라켓을 든다.

신유빈은 임종훈(한국거래소)과 호흡을 맞춘 혼합복식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여자 단식에서는 하야타 히나(일본)에게 동메달을 내줬다.

신유빈은 5일 시작되는 단체전 16강에서 한국 여자대표팀의 메달 도전에 앞장선다.

레슬링 남자 그레코로만형 130kg급 이승찬(강원도체육회)은 2020 도쿄 올림픽에서 노메달에 그쳤던 한국 레슬링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나선다. 이승찬은 5일 오후 10시부터 16강 일정을 시작한다.

김나현(강원도청)은 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 예선을 준비하고 있다. 오후 5시부터 열리는 예선에서 29명 중 상위 18명 안에 들면 오후 10시부터 준결승에서 연기를 펼치게 된다. 다이빙 여자 싱크로 10m 플랫폼 은메달리스트 김미래와의 남북 대결도 이뤄진다. /김진아 기자 jinggi@



상반기 김치 수출량 '역대 최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와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김치 수출량은 2만3천900(톤)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보다 4.8% 증가한 것으로 역대 가장 많다. 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김치. /연합뉴스

# 광주·전남, 역대급 '지방세 핑크'

전남도 하락폭 가장 커...전년 대비 감소액만 3483억원  
전국 상반기 1조8천억 감소...법인세 부진·경기침체 영향

광주·전남 등 전국 10개 시·도에서 올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이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실적 부진과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 세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전남도의 상황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지방세 진도율이 작년 상반기보다 하락한 곳은 광주·전남을 비롯해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경북, 제주 등 10곳이었다.

상반기 진도율은 올해 예상했던 연간 세수 대비 해당 기간 세수가 얼마를 걷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작년 진도율은 실제 걷은 지방세를 기준으로 한다. 다시 말해 올해 진도율이 작년보다 낮다면, 실제 지방세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자료를 분석해 보면, 전국 17개 시·도 올 상반기 지방세 수입은 50조 6341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

간 52조 3877억원보다 1조 7536억원(3.3%) 감소했다.

시·도별로 광주는 올해 상반기동안 지방세 1조 2418억원의 결여를 견어 올해 세입 예산(2조 6030억원) 대비 진도율은 47.7%였다. 이 같은 진도율은 작년 상반기보다 0.4%포인트(p) 낮은 수치다.

광주시의 단순 지방세 수입에만 보면 올 상반기 실적은 1조 241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67억원이 더 들어왔다. 하지만 올해 목표 세입 예산이 전년보다 1600억원 정도 더 많고 전년 대비 진도율 하락 등을 감안하면, 올 연말까지 들어올 실제 지방세는 예상보다 저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남도의 지방세 상황은 역대급일 정도로 심각하다.

전남도 전국 17개 시·도 중 올 상반기 진도율이 작년보다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전남도는 올 상반기에 지방세 1조 9479억원을 견어 진도율 48.7%를 기록했는데, 이는 작년 상반기(56.2%)보다 7.5%p 낮은 수치다. 전남은 특히

작년 상반기에 2조 2962억원의 지방세 수입 실적을 냈으나, 올 상반기는 이보다 3483억원이나 감소한 실적으로 보이고 있다.

반면 부산은 올 상반기에 전년 동기보다 2413억원 많은 3조 1344억원을 걷었으며, 진도율도 49.5%로 전년보다 5.5%p나 상승했다.

대구도 올 상반기 전년보다 2222억원 많은 2조 226억원의 지방세 수입을 올려 전년 대비 3.8%p 높은 진도율 46.8%를 기록했다.

올해 최종 지방세수 핑크 여부는 재산세 9월 정기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취득세 증감 등이 변수로 꼽히고 있다.

일단 전국 평균이긴 하지만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부동산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해 재산세 수입이 소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지방소비세와 연동되는 부가가치세, 부동산 거래량에 따른 취득세 증감에 따라 지방세수 감소 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광주와 전남·북 등의 경우 경기침체가 워낙 심각한 데다 부동산 거래마저도 뚝 끊긴 상황이어서, 올해 지방세 실적이 역대 최악일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오광록 기자 kroh@

## '광주 전문예술극장 건립' 당신의 생각은?

광주시, 5~9일 '광주온(ON)'서 시민 온라인 설문조사

광주시가 5일부터 9일까지 온라인 시민소통 플랫폼 '광주온(ON)'에서 '전문예술극장 건립에 대한 시민의견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문예술극장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민 의견을 수렴해 많은 시민이 공감하는 공연장을 건립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에 새로운 공연장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이라는 주제로 실시하는 이번 설문조사는 광주에 새로운 공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새로운 공연장이 생긴다면 어떤 장르를 선호하는지, 공연장 건립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지 등을 듣는다.

설문조사 결과는 사업 추진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설문조사는 '광주온(ON)' 누리집( <https://gwangjuon.gwangju.go.kr/main.do>)에 접속해 '시민정책참여단'에 가입

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광주시는 전문예술극장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전문예술극장 건립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내년 초 중앙부처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전문예술극장은 오페라·뮤지컬 등 예술 공연을 상연할 수 있는 전문화된 공연장으로, 광주와 전라권을 뛰어넘어 아시아권중심도시를 대표하는 차별화된 랜드마크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유정아 광주시 문화도시조성과장은 "사업 초기부터 중앙과 지역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건립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도 사업에 담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 뭏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뭏 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4년 8월 2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결손보전 목적으로 자본의 총액 금 973,200,000원중 금953,740,000원을 감소하여 금19,460,000원으로 하고, 그 자본감소 방법으로 1주의 금액 10,000원의 보통주식 50주에 대하여 보통주식 1주의 비율로 강제무상소각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주주권을 가진 주주 및 집권자는 이 공고의 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월내에 주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5일

주식회사 아르인더스트리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108번길 40(월출동) 대표이사 채원 일

###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익의 제출공고)  
주식회사 이흥전력(이하 "갑"이라 한다)과 석진소방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2024년 8월 1일 각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재선(영입)의 일부인 전선소방시공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문을 "을"과 분할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며, "갑"의 분할된 부문의 관리업무는 "을"이 승계하고, 합병 제30조의 9제항에 의하여 출자신 이익의 제하여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재일로부터 1개월내로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5일

"갑" 주식회사 이흥전력  
광주광역시 북구 문산로74번길 61 (문곡동) 대표이사 최용 태  
"을" 석진소방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광안구 하남산로6번 57, 바-601호 (오선동) 대표이사 염규 석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